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4월 4일(금)  
(윤력 3월 7일)  
Пятница  
4 апреля 2025 г.  
№ 13 (12130)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지난 2일(수) 사할린주일반과학도서관에서 2003년에 헬리콥터 사고로 사망한 이고리 파르후트지노브 전 지사 탄생 75주년 기념하여 '인간성을 유지해야 한다'란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회는 4월 25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이예식 기자 촬영)

##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박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4일로 정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선고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도 판결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나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대략적인 결론은 정해져 있지만 마지막으로 주문을 확정 짓는 절차다.

판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결론이 도출되면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 사할린, 제4회 유라시아 다이빙 컵 개최

제4회 유라시아 다이빙 컵이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렸다. 3일간의 대회 기간 동안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쿠바, 에콰도르,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메달을 놓고 경쟁을 펼쳤다.

대회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월나(파도)'수상센터에서 진행되었다.

다이빙 선수들은 3미터 스프링보드와 10미터 타워에서 남녀 솔로 및 싱크로나이즈드 점프 부문의 총 8세트 경기를 치렀다.

대회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선수들은 금메달 8개, 은메달 7개, 동메달 1개 등 총 1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쿠바 팀은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고, 아르메니아와 벨라루스 대표팀은 각각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제4회 유라시아 다이빙 컵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는 우리에게 다이빙 지도의 완전히 새로운 지점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최고라고 생각하는 놀라운 수상 스포츠 단지가 있습니다. 선수들과 사범들은 이 시설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수들은 모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대회 조직은 최고 수준이었으며 앞으로도 이곳에서 대규모 전국 및 국제 대회를 계획할 것입니다. 또한 공연과 훈련 모두에 완벽한 시설이기 때문에 러시아 대표팀의 훈련도 이곳에서 가능합니다."라고 러시아 수영 연맹의 부회장이자 2회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글레브 갈페린이 말했다.

다이빙 유라시아 컵은 '체육 문화 및 스포츠 발전'국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 단신

### 고르닌 러시아 국방부 차관, 사할린 방문

레오니드 고르닌 러시아 연방 국방부 제1차관은 사할린 실무방문 차에 동부군사 지구의 군 부대 활동을 점검하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함께 시 군 등록 및 입대 사무소와 군 계약복무 선정 지점을 찾았다. 또한 고르닌 차관은 특수군사작전지역에서 용기와 영웅을 보여준 장병들에게 직접 국가 표창을 수여했다.

### 유즈노사할린스크, 4월 1일부터 버스 요금 인상

2025년 4월 1일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에서 현금으로 지불하는 버스 요금이 45 루블리로 인상되었다. 시 행정부의 홍보실에 따르면 동시에 은행카드 또는 통합 교통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비용은 35 루블리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현금 결제에 대한 버스 요금 인상은 지역 동력위원회의 명령과 관련이 있으며 연료 및 예비 부품 가격의 인상과 운전자 급여와 관련이 있다.

### 사할린 지역의 대조국전쟁 참전 용사, 사할린주 명예시민 대

현재 사할린주에는 대조국 전쟁 참가자 8명이 거주하고 있다. 승전 80주년을 맞아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발의로 주두마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순서나 공적과 별도의 '사할린주 명예주민' 칭호를 참전용사들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위대한 조국 전쟁에 참여한 8명 중 2명은 이미 사할린주의 명예주민이다. 이전에는 법에 따라 매년 2-3명에게만 사할린주 명예주민 칭호를 수여할 수 있었다.

### '사할린과 쿠릴의 영웅들' 인적 자원 프로그램 신청자, 선정 시험 시작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특수군사작전에 참여한 사할린 수비군들이 '사할린과 쿠릴의 영웅' 인적 자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온라인 시험을 치렀다. 첫 번째 단계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추가시험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고, 4월 8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최종 시험인 면접이 예정되어 있다.

면접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직접 또는 원격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면접은 당시 특수군사작전 지역, 군병원에 있거나 사할린주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모든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군인들은 인재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정은 6월 23일에 시작된다. 현역 군인의 경우, 특수군사작전 지역에서 돌아오는 즉시 교육이 진행된다.

'사할린과 쿠릴의 영웅' 프로그램에 약 450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새고려신문

##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15,49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 인공지능과 함께 창작을 하는 김명희 프리랜서

3월 중순에 잘 아는 러시아 기자가 짧은 뮤직 비디오를 보내면서 '혹시 노래하는 분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았다. 뮤직 비디오의 제목은 '사할린. 체호브. 영원.'이다. 영상을 보고 주제와 노래는 사할린 사람들을 매혹시킬 만큼 매력적이었다. 영상의 제작자가 궁금해져 '브 콘택트(VK)' 러시아 소셜네트워크에 이 비디오가 최초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제작자와 연락하고 인터뷰를 요청했다. 이 영상은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제작되었다고 전했다.

주인공 이름은 **김명희**(김 알료나)다. 1975년생인 알료나는 사할린주 홈스크시에서 태어나 9세에 가족과 함께 차플라노워 마을로 이사해서 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이곳에서 살아왔다. 그녀는 의사가 되길 꿈꾸었는데 경제가 무너진 1990년대 초기 생활 안정 문제가 심각해 부모님은 그녀의 소원을 지지하지 않았다. 부모의 뜻에 따라 삼육대학 유즈노사할린스크 분교를 마치고 한 때 한국어 관련 일도 하였다. 장기간 '그린팔라스'회사에서도 근무하기도 했다. 첫 전공에서 자신을 찾지 못해 직업도 여러 번 바꾸기도 했다. 공부를 좋아하여 사할린국립대를 졸업하고 여러 교육과정도 수료하고, 특히 창작에 항상 관심이 있었다. 현재 혼인하여 딸이 벌써 26세이다. 김명희 씨는 이미 몇 년째 모스크바에 살고 있으며 인터뷰는 주로 서면으로 하였다.

**- 영상이 게시된 지 곧 인기를 얻었는데요. 현재 여러 소셜네트**

**워크에도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유즈노사할린스크 체호브센터와 '사할린 섬' 체호브 책 박물관 소공원에 있는 체호브 책 속의 주인공들을 영상 제작으로 부활시키게 된 동기는?**

- 사실, 이걸 잘 몰랐습니다. 뜨거운 반응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낯선 사람들이 감사의 댓글도 보내고 응원하기도 합니다. 정말 모든 분들께 감사해요.

올해 초에 제 친구가 저를 신경망으로 '인도'해서 그것이 창의성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그녀에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경망을 연구하면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조각품이나 기념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랜 제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살던 집 근처에 있는 체호브 책 속의 주인공인 청동상 '낯선 여인'이 생각났어요. '그녀'와 만나기 위해서는 자주 이 장소를 찾아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낯선 여인'의 애니메이션 결과에 만족했고,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있는 체호브 책 속의 주인공 조각품 모두를 '살게' 해주고 이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모아 이 영상을 사할린 사람들에게 바치기로 했습니다.

사진 검색, 선택 및 편집, 애니메이션, 작곡, 편집 포함해 영상을 만드는데 약 4일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노래를 직접 쓸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사할린에 적합한 음악이나 노래를 찾던 중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탄생했고, 글을 써야 한다는 걸 곧 깨달았

죠. 저에게 인공지능 가능성을 보여준 친구에게 생일 축하 비디오를 만들 때 인공지능 도움으로 노래를 작사·작곡한 작업 경험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와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글을 써야 한다는 판단이었어요. 물론 인공지능과 공동으로 집필했죠. 노래 가사를 쓰기 위해 저는 AI에게 영상에 대한 아이디어, 영상에 들어갈 내용을 설명하고, AI에게 사할린과 체호브 작가와의 연계, 체호브의 작품들(조각품으로 표현된 주인공), 주인공의 캐릭터에 대한 정보를 찾아 연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조각품이 정확히 어떻게 표현되는지, 어떻게 생생하게 표현하고 싶은지 설명하고, 섬의 아름다움, 체호브와 사할린의 관계, 섬 주민들의 추억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을 받은 후, 마음에 드는 장면을 골라 편집 작업을 했습니다. 최종 결과를 얻는 건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컴퓨터 키 몇 개를 누르는 일이 아니라 매우 어렵고 힘든 작업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시를 쓰는 방법을 몰라도 무엇을 얻고 싶은지 명확히 알고 있고, 잘 전달될 경우에 AI는 정말 유용한 도구입니다. 다음으로, 완성된 텍스트를 Suno 신경망으로 보내고 장르, 음성 등에 필요한 매개변수를 설정하면 노래 옵션이 나오는데, 저에게 맞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 체호브의 책 속 등장인물 조각품이 '사할린 섬' 체호브 책 박물관과 체호브 센터의 연극극장 근처에서 있는데 이 기관들에**



**도움을 요청하셨나요?**

- 아니요, 저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소셜 네트워크 VK에 영상을 올렸을 때 박물관과 극장을 태그했더니, 그쪽 관계자들이 댓글을 달고 제 영상을 자기 홈페이지에 공유하더군요.

**-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서 '이 분은 창의력이 풍부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저의 창작 활동은 어린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고, 어른들을 보고 그들에게서 배우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뜨개질하는 것을 보고, 저도 뜨개질을 배웠고, 엄마로부터 마크라메를, 가족 남자 어른들을 따라 톱질도 하고 목수일도 좀 익혔고, 자기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걸 배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삼촌의 차고였는데, 그 차고는 제가 어린시절을 보냈던 조부모님 집 부지에 있었습니다. 차고에는 다양한 도구가 있어서 눈길을 끌었는

데, 물론 저는 제 작업에 적극적으로 도구들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청소년을 위한 기술', '과학과 삶' 등의 잡지를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수공예와 그림 그리기 등 모든 대회에 참여하여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5학년 때부터 학교를 마칠 때까지 학교 신문을 만드는 편집위원으로 활동했고, 노동 수업에서는 재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기술을 제 삶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노래도 하시지요?**

- 제가 삼육대 재학시절에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어요. 저는 노래방 수준에서 노래하고, 제 딸은 프로 보컬리스트이고 직접 시도 쓰고 작곡도 합니다.

**- 자신의 작업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 제 자신이 비판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인공지능과 함께 그동안 만든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고 만족해요. 저는 AI를 활용한 창작과정 자체도 좋아합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김명희 씨는 디지털 아트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고, 창의성 면에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기획 개발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 사할린을 좋아하며 그리워하고, 특히 낚시를 하고 싶다고 하며, '사할린. 체호브. 영원'이란 노래를 그녀의 딸이 생생한 목소리로 녹음하려는 계획도 하고 있다.

계속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김명희(알료나)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배순신 기자)

## 이 모 저 모

**'오로라' 항공, 승전 80주년 맞아 참전용사와 '전쟁의 아이들'에게 무료 항공편 제공**

오로라 항공은 위대한 조국 전쟁 승리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캠페인 "전우와의 만남"을 시작한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조국전쟁 참전자와 장애인 참전용사, '전쟁의 아이들(어린 시절 전쟁을 겪은 사람들)'(1923년 6월 22일부터 1945년 9월 3일 사이 출생한 러시아 시민)은 오로라 항공의 모든 국내선 항공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승전 80주년 기념하여 행사 유효기간 평소보다 길어져 발권은 2025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운항 기간은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또한 각 항공편 구매자에게는 동반 1인 무료 티켓이 제공된다.

"참전용사들이 축제 행사에 참여하거나 동료 군인, 친척,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군사적 영광의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항공편을 무료로 제공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해방국의 위업에 감사를 표하고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 분들의 기억을 기리는 우리의 방식입니다."라고 콘스탄틴 수호레브리크 오로라 항공 대표이사가 말했다.

할인 항공권은 오로라 항공의 자체 영업소 및 대리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행사 조건 및 인솔자 특별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로라 고객 센터(무료 전화 8-800-250-49-88) 또는 여행사에 문의하면 된다.

**Аврора подарит бесплатные перелеты ветеранам и «детям войны» к 80-летию Победы**

Авиакомпания «Аврора» запускает масштабную акцию «Встреча боевых друзей», приуроченную к 80-й годовщине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В рамках этой инициативы участники и инвали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а также «дети войны» (граждане России, родившиеся с 22 июня 1923 года по 3 сентября 1945 года) смогут совершить бесплатный перелет на всех собственных внутренних рейсах авиакомпании.

Ва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в честь юбилейного года акция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дольше обычного:

Оформление билетов: с 1 апреля по 31 декабря 2025 года.

Период перелета: с 1 мая по 31 декабря 2025 года.

Каждый участник акции также имеет право оформить бесплатный билет для одного сопровождающего. «Мы с большой честью бесплатно доставим нашими рейсами ветеранов к местам боевой славы для участия в праздн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или просто для встречи с однополчанами,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и друзьями. Это наш способ выразить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 подвиг нашего народа-освободителя и почтить память тех, кто отстоял свободу и мир»,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вроры» Константин Сухореврик.

Оформить льготные авиабилеты можно будет в собственных офисах продаж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а также у агентов.

За подроб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об условиях акции и специальных тарифах для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можно обратиться в контакт-центр «Авроры» по бесплатному номеру 8-800-250-49-88 или в агентствах.

**오하에서 대륙까지 드론 비행의 특별 이유 설명**

'오로라 무인 항공시스템' 대표 드미트리 트레찌야코브

는 동영상도 촬영하고 오하에서 니콜라옴스크-나-아무레까지의 무인 항공기 비행의 특별 이유에 대해 게시했다. 영상이 포함된 게시물은 텔레그램 @krylyasakhalina에 게시되었다.

"소셜 미디어를 검색하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항공에 대해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인 항공에 막 입문한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뉴스에서 우리 이번 무인 비행의 독특함에 언급되긴 했지만, 설명기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비행의 특별함은 긴 비행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포기비에서 라자레브까지 9km를 비행할 수도 있고, 홈스크에서 와니노까지 또는 다른 경로로 300km나 500km를 비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드론은 무인 항공기가 비행 모드를 이용하지 않고 통제된 항공기처럼 민간 항공 규칙에 따라 공항에서 공항으로 비행했습니다. 우리는 드론이 항공기와 함께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실제로 그렇게 비행했습니다. 우리는 니콜라옴스크에 착륙하는 비행기와 함께 착륙을 위해 줄을 서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행의 독특함이고 거리가 드론이 무엇을 신고 있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드미트리 트레찌야코브가 설명했다.

**Почему полёт беспилотника из Охи до материка уникален**

Руководитель "Аврора БАС" Дмитрий Третьяков записал видео и выложил пост о том, почему полёт БПЛА из Охи до Николаевска-на-Амуре является уникальным. Пост с видео опубликован в Telegram @krylyasakhalina.

(8면에 계속)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입춘: 봄이 왔다!"행사 개최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전영근)는 창설 3주년 맞아 지난 3월 29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시티몰쇼핑센터에서 "입춘: 봄이 왔다!"라는 문화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축제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한민족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었다. 이날 시민들은 '사할린한인'시한인회에서 정성껏 준비해온 다양한 전과 나물 등 한식을 시식하고 여러 종류의 향기로운 한국 전통 차, 떡과 과자도 맛보았다. '한글'창작회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공예활동교실도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입춘의 상징인 벚꽃을 그리는 전통 기법을 배우고, 종이로 한복도 직접 만들어보았다. 또한 건강관리 코너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건강 검진과 의료 상담이 제공되었다.

행사는 쇼핑센터를 찾은 많은 방문객의 관심을 끌었으며, 참가자들은 한국 문화의 매력에 흠뻑 빠지기도 했다.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관계자들은 수많은 축하와 함께 음식, 문화, 건강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칭찬과 감사도 나누었다.

'사할린한인'시한인회는 그동안 정기적으로 여러 행사와 축제, 어르신들을 위한 모임, 장애아들을 위한 봉사, 한민족문화 알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행사는 사할린의 다문화 공동체 속에서 한국 전통이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취재: 글/드미트리 포구다예브, 사진/이예식)

# '오스트로와'전 러시아 청소년 포럼, 올해 가을에 진행

'오스트로와(שמות)' 전 러시아 청소년 포럼이 2025년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러시아 청년청 포럼 플랫폼을 통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포럼에 주최자, 자원봉사자, 전문가 등을 포함해 5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학생, 대학생, 직업학교 학생 및 청년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지역 기업 청년 협의회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예비 인재로서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에게는 진로지도가 주제가 될 것이다. 포럼 총결로 현재 추코트카, 리베츠크, 니즈니-놉고로드, 부라치야와 공동으로 작업 중인 전문성 개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포럼 대표 아나스타시야 코제펜코가 설명했다.

올해 '오스트로와' 전국 청소년 포럼은 관광, 석유 및 가스, 건설, 의료, 항공, 에너지, 수소, 무인 생산, 과학, 스포츠,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포럼의 부대표 발레리아 사이트발리예와는 "참가자, 주민, 방문객을 위한 문화,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용을 채우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등록 접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 청년사업청과 사할린주 정부의 주최 아래 진행되는 '오스트로와' 전 러시아 청소년 포럼에는 전국의 14세에서 35세의 청소년이 참가한다.

"올해는 학생, 대학생, 젊은 전문가 등을 대상 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청년 전문가는 예비인재권에 들어갈 수 있고, 고용주와 안면을 트고, 지역 내 채용공고를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전문성 개발과 앞으로 고용의 규모와 방향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학교 학생들

# 광주 고려인문화관, 광복 80주년 특별전시

(광주=연합뉴스)천정인 기자=광주 광산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월곡고려인문화관에서 기획전시 '고려인 한글문학전'과 특별전시 '중앙아시아로 건너간 사할린 한인들'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고려인문화관은 두 전시와 연계해 4월 11일과 19일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과 인문학 특강을 연다.

사할린 출신 고려인 동포 이정희 작가와 김성조 전 고려일보 주필이 이야기 손님으로 참여한다.

기획 전시에서는 모국어와 문화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명맥 이어온 고려인 한글 작가들과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특별전시는 고려인 역사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할린 한인들'의 삶과 역할을 조명한다.

인문학 강좌는 사할린 한인 연구 권위자 최상구 박사가 강사로 나선다.

광산구 관계자는 "고려인마을이 많은 시민의 발길을 모으는 역사 문화 탐방의 거점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노비에프 게오르기 주한 러시아 대사 인터뷰

[서울=뉴스]신정원 기자 =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재건과 관련해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역량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 김선용 기자 =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가 26일 서울 중구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뉴스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3.28. mangusta@newsis.com

지노비에프 대사는 26일 서울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 진행된 뉴스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국 기업의 러시아 복귀 문제에 대해선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것은 (러우 전쟁과 관련한) 외부 압력 때문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그들 중 다수가 복귀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비우호국' 명단 해제 가능성과 한러 관계 개선 조건으로 '대러 경제 제재 해제'와 '직항 항공편 운항 재개'를 꼽았다.

러우 전쟁 평화 협상 중 영토 문제와 관련해선 '러시아 헌법에 따른 영토 보전'을 강조했다. 러시아는 2022년 9월 우크라이나 4개 지역을 합병한 뒤 헌법상 러시아 영토로 편입한 바 있다. 종전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 안보 위협 해소,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계 주민 보호 등 '근본 원인' 제거란 입장도 반복했다.

다음은 지노비에프 대사와의 일문일답.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및 정보 공유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미국은 그 전에 지원을 잠시 중단했지만 지금은 재개한 상태인데, 이것이 휴전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나.**

"현재 러시아와 미국 간에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해 외교적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 지도부 대표들이 여러 차례 밝혔듯, 우리는 이 갈등을 해결하려는 미국의 건설적인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협상의 모든 세부사항을 밝힐 수는 없지만, 상황은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지금까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가 여러 차례 언급했듯 공정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선 현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그것은 먼저,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서방이 계속해서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어 사용 인구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2014년 이후 위기 해결을 위한 어떤 합의도 체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데 있다."

**-러시아는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주둔 평화유지군 배치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은 러시아의 잠재적인 추가 침략 가능성과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영국과 프랑스의 주도로 '의지의 연합'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데, 조울 가능한 부분이 나 대안이 있는지. 또 평화협상 후 우크라이나 내에 러시아군을 주둔할 계획이 있는지.**

"현재 위기가 끝난 뒤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어디에 어떤 평화유지군이 배치될지, 혹은 배치 자체가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유럽은 이번 위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어떻게든 갈등을 키우려 하면서 평화적인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 유럽 지도자들은 '이 갈등은 전장에서 해결돼야 하며, 러시아는 전략적 패배를 당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가하고 분열시키려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유럽의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였다. 오늘날 유럽평의회(PACE) 의원총회는 러시아의 탈식민화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유럽 내에서 서방 정보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옛 러시아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연합(EU)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해결책이 아닌 문제의 일부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이 아닌 점령군을 보낼 준비가 돼 있다.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유럽을 침공할 의도도 없다고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러시아 위협에 대한 모든 주장은 유럽이 만들어낸 또다른 무책임한 거짓말이다. 러시아는 유럽을 정복할 생각이 없지만, 유럽 국가들의 공격적인 수사와 계획에 대해선 우리의 안보를

단호히 지킬 것이다."  
**-영토 문제는 가장 어려운 협상 중 하나로 보인다. 러시아는 모든 절차를 거쳐 헌법상 영토 편입을 마쳤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사회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점령지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유지' 또는 '포기'할 영토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것이 최종적인 타협 지점이 될 수 있나. 혹은 비무장지대(DMZ)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지.**

"러시아 군은 헌법에 따라 러시아의 영토 보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외교적 접촉이 진행 중이며, 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경과나 잠재적인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덧붙여 국제사회를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이들에게는 좀 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싶다. 유엔 헌장에 따르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다. 러시아의 이익을 제한하는 어떤 결정도 안보리에서 채택된 바가 없다. 올해 2월24일 안보리에서 채택된 유일한 우크라이나 관련 결의안은 갈등 종식과 공정한 평화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것이야말로 국제사회의 의견을 구속력 있게 표현한 것이다. 프랑스, 영국, 덴마크, 그리스, 슬로베니아와 달리 러시아 연방은 한국, 그리고 다른 10개 안보리 이사국과 함께 해당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현재 평화협상은 미국의 중재로 이뤄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회담을 주선했고, 이 외에도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중재 의사를 밝힌 국가들이 많다. 또 기존에 유럽은 주요한 참여자로 역할해 왔다. 평화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길 원하는 국가나 국제기구가 더 있나.**

"유럽의 역할에 대해선 앞서 언급했다. 건설적인 의지를 지닌 국가들의 노력은 모두 환영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점점 더 패배하면서 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결국 현재 가장 중요한 평화 중재자는 러시아 군이다. 러시아 군인들이 이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군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수록, 평화를 향한 열망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평화협상 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거나 경제 협력을 재개할 계획이 있나. 그렇다면 그 조건이나 특히 중요하게 다룰 특정 분야가 있는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대외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미래 관계는 현재 위기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우호적이고 중립적이며 평화로운 국가가 되기를 바라며, 나치 협력자를 찬양하지 않고 모든 민족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이웃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전후 재건과 관련해서는,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역량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러시아 지역에 진출하길 기대한다. 특히 시급한 곳은 예전에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영토들이다."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нкурс эссе к 75-летию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 «Простите меня, папа! Благодарю за все, мама!»

Ким Сан Сун(Южно-Сахалинск), 2 место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11)

Здание "Современника", слава Богу, сохранилось по сей день, образец своего времени и стиля: сталинского барокко, с колоннами и лепниной, большими арочными окнами, с балюстрадами на парадных лестницах, двумя крыльями огибающими фасад, а далее внутри колонны, плавно уходящие вверх.... Там, на втором этаже, брат долго выбирал какую-то пластинку...

Когда вернулись домой, брат Ден Хак(정학) посадил меня на табурет и торжественно, с видом мага-чародея, вытащил из красивого конверта черный диск и поставил под иголку проигрывателя. Раздались громкие звуки Первого фортепьянного концерта Петра Ильича Чайковского. Мощная и светлая, гармонически прекрасная музыка потрясла до глубины души. Возможно, благодаря этой сильнодействующей «прививке» я и пошла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поклонники искусств – стала искусствоведом, конкретнее - киноведом. Ведь почти всё провинциальное юношество СССР было фанатами кино. По советскому телевидению показывали великие кинокартины. С каким упоением мы, школята, смотрели великолепного «Чапаева» с незабвенным Борисом Бабочкиным, щемящую «Балладу о солдате» с Владимиром Ивашовым, душераздирающую «Судьбу человека» Сергея Бондарчука по повести Михаила Шолохова. А став чуть старше, мы увидели эпический киношедевр С.Ф.Бондарчука, непревзойденную до сих пор экранизацию романа Льва Толстого «Война и мир».

Поступала я во вс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с первой попытки. Секрет прост- я обожала читат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еречитала почти все книги школьной библиотеки, потом всю библиотеку ДК «Родина». Затем в Калуге за три года учебы на режиссерском факультете Культур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го училища (какое емкое было название) прочитала все книги по искусству из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и, включая тома оригинальных трудов выдающихся режиссеров от Сергея Эйзенштейна до Михаила Ромма, а также размышления французских деятелей искусств: Жан-Луи Барро, Франсуа Трюффо, директора миланской оперы Ла Скала и т.д. Как оказалось, многие из прочитан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как раз и изучали во ВГИКе (Всесоюз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нститут кинематографии), где я, в конце концов, завершила форм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Но продолжала еще многие годы изучать историю живописи, архитектуру, дизайн, журналистику, сценарное дело, психологию, редактуру...

Но теперь я думаю, что не столько книжные знания, сколько культурные коды, вынесенные из семьи, от родителей и предков, история многогранн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и, конечно, природное окружение нашего острова сокровищ-сделали из меня того человека, каким являюсь. Мне по наследству достались природный вкус, музыкальность, интерес к кино и театру...

Папа обладал исключительным музыкальным слухом, напевал везде и всегда, ни одной фальшивой ноты. Помню, он постоянно записывал слова любимых песен – корейских и русских - и носил с собой клочки бумажек с каракулями. При каждом удобном случае вытаскивал их и распевал. Поэтому неудивительно, что папа часто выступал на са-



модеятельных концертах диаспоры. Одно время он даже пел в корейском музыкальном театре. Подробнее о становлен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атра можно прочитать в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книге А.Костанова

и И. Цупенковой «Долгая дорога к большой сцене». Сахалин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2004 год. На стр.100 фото народной артистки СССР Тамары ханум, приехавшей на Сахалин в 1950 году с гастролями. Она держит под левую руку-режиссера Ким Ги Чера, а правой-моего отца, певца Ким Бон Ена. Правда, его имя в книге не указано. (См. Фото) В нашем семейном альбоме также есть общее фото корейско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коллектива с Тамарой ханум. Крайним в верхнем ряду справа стоит папа.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существовал всего 10 лет. В начале 60-х были закрыты национальный театр и школы. Остались только радиовещание и газета...

### Кирпичи разрушенного театра...

Казалось, папа был доволен. Зарплата у мотористов хорошая, надо растить троих детей... А петь он продолжал - для друзей на вечеринках, на днях рождениях, на концертах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15 августа. Всегда находились преданные слушатели, которые внимали его пению, затаив дыхание. Помню даже, как расплакался один дядя со Взморья, который специально приехал в Южный послушать папу. Да и многие женщины не могли остаться равнодушными к его душевному пению и мужскому обаянию. Это, в конце концов, стало причиной раскола нашей семьи. И еще одн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о...

... В тот год снесли здание закрывшегося театра, старые кирпичи разломали и растерли в крошево. Им посыпали все дорожки в парке вокруг стадиона. Папа вел меня за руку, а я смотрела только под ноги и восхищалась ярким оранжевым цветом широкой дорожки: «Папа, как красиво, что это такое? Он глухо ответил: «Это стены нашего театра...» И его всегда горячая ладонь, я заметила, была в тот день холодной, он едва держал мою руку какими-то безжизненными пальцами. Жизнь без театра для него померкла. Всё потеряло смысл.

Я перешла в 9-ый класс, когда отец уехал в отпуск на материк, и больше не вернулся. Они там сошлись с лучшей маминной «подругой», бросив свои семьи. Папа лелеял надежду, что на большой земле он вновь сможет выйти на сцену и добиться большего успеха, чем на острове в узком кругу старых друзей. А ещё его томил зов неведомой огромной земли к западу от острова. Тайны самого большого в мире материка, заселенного миллионами людей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и культур, кипение жизни крупных городов... Любопытство и юношеская жадность к приключениям не угадали с возрастом. И, когда наступил роковой кризис среднего возраста, к тому же рядом оказалась женщина, с которой, показалось, можно начать новую жизнь-он рванул, обрубив все концы.

В тот год кончилось мое детство. А юность с ее радостными открытиями так и не наступила. С тех пор для меня, папиной дочки, солнце зашло за горизонт, и мир потемнел на целых 12 лет, пока не родился мой первенец. Камень в сердце от непреходящей боли крошила всю жизнь и даже после смерти отца, я не могла до конца простить его. Предали и его самого. Бумеранг вернулся. Нельзя обрубить родовые кровные связи...

Когда отец постарел и не смог зарабатывать, его бросила та женщина, уехала к своей дочери в столицу и безбедно прожила старость на деньги, заработанные папой на луковых полях Средней Азии. Умер он 5 января 2005 года в Южной Корее всеми покинутый, в одиночестве, в частном приюте города Тэгу, где стариков, по всей видимости, обирали и морили голодом. Иначе, как объяснить, что с каждым годом старики там выглядели все суше и бледнее, а персонал врачей и санитаров все жирнее... Такую ужасающую картину заметила не только я, навестив однажды отца в начале нулевых, но и все мои знакомые, побывавшие в том доме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престарелых корейцев. Их даже не пускали общаться со стариками, ссылаясь на занятость или другие причины. Зато с радостью забирали щедрые подарки с России и поспешно захлопывали ворота... Только сейчас я смогла простить отца и мне очень жалко, что я не утешила и не обогрела его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жизни. Так хотелось обнять на прощание и сказать, что любила его всегда. Простите меня, папа!..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 Проблемы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корё-сарам в Южной Корее: борьба за влияние вместо единства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созданные этниче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из стран СНГ в Южной Корее, изначально задумывались как инструменты помощи репатриантам, сохранения культуры и содействия интеграции в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Однако, как показывает практика, многие из них сталкиваются с внутренними конфликтами, борьбой за лидерство и разобщённостью, что вредит самой идее их существования.

При этом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подобные проблемы характерны не только для организаций в Корее — они типичны для мног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Непрозрачность управления, личные конфликты, амбиции и отсутствие устойчивых механизмов самоорганизации — это системные черты, которые продолжают воспроизводиться и в диаспоральной среде.

### Разобщённость вместо сплочённости

Многие организации, созданные с благими намерениями, по мере роста начинают сталкиваться с внутренними разногласиями, ведущими к расколу. Нередко бывшие соратники, вместо объединения усилий, создают конкурирующие структуры. Это приводит к противостоянию, взаимной критике и подрыву доверия к общественным инициативам в целом.

Ситуация напоминает басню Крылова «Лебедь, Рак и Щука» — каждый тянет на себя, а результатом становится застой и неспособность эффективно решать проблемы сообщества. В итоге ресурсы расходуются не на поддержку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а на внутренние разборки, искажающие саму суть общественной работы.

### Причины конфликтов:

1. Борьба за влияние и статус.

Для некоторы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статус главы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тановится способом повысить свой социальный капитал, а не инструментом для решения реальных проблем.

2. Финансовые и ресурсные вопросы.

Распределение средств и доступ к спонсорской помощи часто становятся предметом разногласий.

3. Отсутствие прозрачности и демократии.

Многие организации работают без чёткой системы управления, что приводит к кулуарным решениям и недовольству внутри сообщества.

4. Личные амбиции.

Некоторые лидеры стремятся к персональной заметности вместо фокусирования на развитии организации и укреплении единства.

### Последствия таких конфликтов:

1. Разочарование среди корейцев СНГ.

Люди, рассчитывающие на поддержку, сталкиваются со склоками и теряют доверие к общественным структурам.

2. Утрата авторитета организаций.

Когда объединения заняты внутренними спорами, они перестают восприниматься как серьёзные и надёжные институты.

3. Низкая эффективность помощи.

Из-за внутренних противоречий многие инициативы не реализуются или выполняются формально.

### Что можно сделать для улучшения ситуации?

1. Создать систему внутреннего контроля.

Прозрачность и подотчётность должны стать основой всех процессов.

2. Привлекать независимых модераторов и медиаторов.

Ключевые решения важно принимать открыто, с участием независимых экспертов.

3. Ориентироваться на реальные потребности сообщества.

Необходимо уходить от конкуренции за влияние и сосредоточиться на решении конкретных проблем.

4. Развивать молодёжное участие.

Свежие взгляды и энергия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пособны снизить уровень конфликтности и вдохнуть жизнь в инициативы. Особенно важно привлекать молодых людей, не обременённых устоявшимися «совковыми» подходами к организации, где формальность и иерархия часто ставят выше смысла и результата. Они способны предложить более гибкие, открытые и современные формат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е на реальные потребности сообщества.

\*\*\*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должны служить сплочению и поддержке корейцев СНГ в Корее, а не превращаться в площадку для споров о влиянии. Пока внутренние разногласия отвлекают от реальных дел, трудно ожидать эффективной работы и доверия со стороны сообщества.

Важно начать открытый и доброжелательный диалог — с желанием услышать друг друга и объединить усилия ради общего блага. Только через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взаимное уважение можно вернуть уверенность в том, что общественные объединени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работают в интересах людей.

Владимир СО (소명수),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https://t.me/saramkor>)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Мы в начале большого пути»

### Вердикт об импичменте Юн Сок Ёлю будет объявлен 4 апреля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РК объявит вердикт об импичменте президенту страны Ён Сок Ёлю 4 апреля в 11 часов утра. Как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уда, заседание будет транслироваться в прямом эфире. Юн Сок Ёль отстранён от должности решение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Его обвиняют в нарушении Конституции и ряда законов во время объявления чрезвычайного положения 3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Решение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суда считается принятым, если его поддержат не менее шести из восьми судей. Если суд удовлетворит ходатайство об импичменте, Юн Сок Ёль будет окончательно отстранён от должности. В этом случае в течение 60 дней должны пройти досрочные президентские выборы. Если ходатайство будет отклонено, он продолжит исполнять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до мая 2027 года. Одновременно дело Юн Сок Ёля рассматривает уголовный суд. Его обвиняют в орган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реворота.

### Лесные пожары на юго-востоке РК в основном потушены

Лесные пожары, которые с 21 марта бушевали в юго-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ах РК, провинциях Кёнсандо и окрестностях города Ульсана, в основном потушены.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министра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 Ги Дон, выступая 30 марта на заседан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борьбе со стихийными бедствиями и катастрофами.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нынешние пожары стали самыми сильными в истории страны. Число пострадавших составило 75 человек, подтверждена гибель 30 человек. Огнём было охвачено около 40 тысяч гектаров лесов. Сгорели около трёх тысяч зданий и сооружений, в том числе, 30 объектов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и две тысяч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объект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ыделило помещения учебных центр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частных компаний для временного размещения граждан, чьё жильё уничтожено или повреждено пожарами. Им будет также оказана экстренная финансовая поддержка.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едлагает приня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едложило приня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в размере не менее 10 трлн вон (6 млрд 800 млн долларов). Об этом заявил вице-премьер, министр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Чхве Сан Мок, выступая 30 марта на экстренном совещании министров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блок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необходим для решения наиболее неотложных проблем, таких как поддержка экономики, пострадавшей от политической неопределённости, вызванной введением чрезвычайного положения 3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Средства нужны также для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несчастные случаи и катастрофы, подобные недавним лесным пожарам. Кроме т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ынуждено отвечать на тарифную политику администрации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 отметил Чхве Сан Мок. Законопроект 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м бюджете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 в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до конца апреля.

### Курс корейской воны самый низкий за 16 лет

Промежуточный курс национальной валюты на Корейской бирже 31 марта в 15:30 составил 1.472,9 воны за доллар, что на 6,4 воны ниже, чем на предыдущей торговой сессии 28 марта. Это самый низкий курс с 13 марта 2009 года, когда страна боролась с последствиями миров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кризиса. В качестве причин нынешней ситуации на валютном рынке эксперты называют опасения по поводу последствий масштабного тарифного план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и возобновление коротких продаж акций. Это продажа ценных бумаг, которыми торговец не владеет. Комитет финансового контроля ввёл запрет на такие продажи в ноябре 2023 года из-за опасений, что короткие продажи без заёмных средств будут препятствовать формированию справедливых цен на рынке. Национальная валюта оставалась на уровне 1.450 вон за доллар с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 Пианист Ким Сэ Хён – лауреат конкурса Лонг-Тибо-Креспена

17-летни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ианист Ким Сэ Хён стал лауреат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имени Лонг-Тибо-Креспена, завершившегося в Париже 29 марта. Он исполнил в финале Концерт № 3, соч. 30 Сергея Рахманинова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оркестра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й гвардии под управлением Бастьена Штил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ианист обучается одновременно в Гарвард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и Консерватории Новой Англии. В Гарвард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он получит степень бакалавра искусств, а в Консерватории Новой Англии - магистра музыки. Ким Сэ Хён стал третьим южнокорейским пианистом, удостоенным награды на этом престижном конкурсе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и. В 2001 году лауреатом конкурса стал Им Дон Хёк, а в 2022 году – Ли Хёк.

*Прошло три года как официальн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г.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ахалин Ханин» (МООСК ЮС «САХАЛИН ХАНИН»).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интервью лидеров организации.*

**Чон Ен Гон (Алексей Анатольевич), председатель МООСК ЮС:**

**- Как Вы думаете, чем ваша организация отличается от других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 Людьми. Командой. Самое важное и главное – это люди. Мы все разные, у нас у всех разные таланты, возможности, но всех нас объединяет идея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пуляризация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языка. Команда, а в нашем случае Актив, это самое важное. Люди, которые поддерживают и отдают себя в работ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Конечно. Это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Ан Че Суни (Галина Геннадьевна), ее женская часть: Светлана Ким, О Елена, Юн Галина, Светланы Ким, У Михаил и его молодежная команда.

**- У организации много партнеров?**

Да, за короткое время у Сахалин Ханин появились друзья – партнеры. Это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и коммер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мы очень дорожим и ценим сложившиеся связи. С Центром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Остров» (Ан Сухаги) нас связывают годы дружбы. Ни один совместный проект не проходит без участия Творче-

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Хангыль» (Пе Анжела).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но очень деятельно стали работать с ЮСАНОПИИ "Виктория" (И Наталья). Среди новых друзей СРООВСВО "Зевс"(Архангельский Н.) и Федерация тхэквондо ГТФ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 Буторин)

**- Планы на будущее?**

- Мир стремительно меняется, меняются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мы сами меняемся. Я считаю, что когда в организации есть одна объединяющая цель, из любого предложения может родиться большой проект. Из уже реализованных проектов это - «Счастливая мама», «Ден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тематический проект о забытых праздниках, уже отработали «Тончжи наль», «Ипчхун», на очереди большой социальный проект «За нас», месячник «Уроки о важном». У нас есть планы на будущее, но я бы хотел, чтобы мы больше говорили о том, что уже сделали. Мы только в начале нашего пути.

**Ан Галина (Ан Че Сун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МООСК ЮС:**

**- Как пришли в организацию?**

- В организацию пришла ради интереса, даже любопытства, интересно было посмотреть изнутри, чем занимаются общественники и когда поняла, что можно делать очень много полезных и добрых дел, решила остаться.

Я давно на пенсии, поэтому всё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посвящаю работе в нашей организации.

**- На ваш взгляд, какие у организации самые главные задачи?**



Наши цели и задачи, как у люб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обольше людей привлечь к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проводить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для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Заниматься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стью, помогать и поддерживать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Уверена, мы справляемся.

Конечно, организация кулинарных мастер-классов, праздничных банкетов, это тоже очень важная часть работы. Мы наработали достаточный опыт, есть хорошая ресурсная база,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 люди.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и, поддерживающие все инициативы «Сахалин Ханин».

Организация досуг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 это намного сложнее, чем может показаться. Отзывы участников таких программ позволяет говорить, что мероприятия «САХАЛИН ХАНИН»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 и востребованы среди местных корейцев. Мы только начали работу, главное сейчас, двигаться дальше. Как гласит корейская поговорк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Там, где есть смысл, есть путь»).

## "Ипчхун: весна пришла!"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праздник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29 марта в торгово-развлекате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Сити Молл" прошло яркое культур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Ипчхун: весна пришла!", посвящённое 3х-летию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Ханин".

Гости праздника смогли погрузиться в атмосферу корейских традиций: продегустировать национальные блюда, традиционные корейские сорта чая и сладости. Организаторы – "Сахалин-Ханин" и творче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Хангыль" – подготовили интерактивную программу: увлекательные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каллиграфии и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Участники осваивали традиционную технику рисования цветущей вишни - символа праздника Ипчхун, а также создавали миниатюрные бумажные ханбок (корейские национальные костюмы).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организаторы уделили поддержке здоровья и долголетия.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специальная зона, где желающие могли пройти мини-диагностику и получить консультацию врачей-специалистов.

Культур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ивлекло



множество посетителей торгового центра, позволив им прикоснуться к богатству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Благодаря активной работе "Сахалин-Ханин"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регулярно проходят фестива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и концерты, которые вносят значимый вклад в культурное разнообразие Сахалина.

Этот праздник вновь показал, насколько тесно переплетены традиции разных народов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и как важно сохранять и делиться своим наследием.

**Дмитрий ПОГУДАЕВ**  
Фото ЛИ Е Сика

## Вячеслав Ким завоевал золотую медаль на «Кубке Петра Великого»

29-го марта 2025 год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прошёл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урнир по тхэквондо МФТ «Кубок Петра Великого», который собрал более 220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34-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и 18-ти дружественных стран.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редставляла команда СРОО Федерация тхэквондо МФТ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грандмастера 9 дан Ан Сухаги и опытных тренеров-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Романова Виктора, Ким Вячеслава, Мамедова Али и Буторина Алексея.

Соревнования оказались весьма успешными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Тренер-спортсмен Ким Вячеслав завоевал первое место в силовом разбивании среди ветера-

нов черных поясов, что заслуженно принесло ему золотую медаль. Кстати, еще в детстве он занимался тхэквондо у именитого спортсмена Ан Сухаги. А сегодня сам тренирует ребят в Чехове.

Голдина Ульяна также показала замечательный результат, заняв первое место в спарринге, завоевав золотую медаль. Владимир сумел занять второе место в туль, в то время как Чан Евгений, Плошко Иван и Ше Максим завоевали третье места в этой же категории и получили бронзовые медали.

Аруева Варвара, выступившая впервые в категории юниорок (2011-2008 годов рождения), заняла четвертое место по силовым разбива-



ниям среди 18 участниц, уступив в четвертьфинале сопернице из Беларуси. У юниоров конкуренция была ещё более ожесточенной, где Ковалев Кирилл, Медведев Дмитрий и Ли Денис заняли 4-е, 5-е и 6-е места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сообщи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хэквондо МФТ.

## Все участник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могут стать Почетными гражданам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егодня проживают восемь участнико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В честь 80-летия Победы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риняты изменения в областной закон,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вне очереди и квоты присвоить им звания «Почетный гражданин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несение изменений в региональный закон инициировал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депутаты облдумы.

– Присвоить звание Почетных граждан – лишь малая толика того, что мы должны сделать для наших ветеранов. Не жалея собственной жизни, они отстаивали мирное будущее для своих семей и нашей великой Родины. В послевоенные годы ветераны своим трудом, своими знаниями и талантами внесли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едставляя документ на заседании комитета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Мишаков отметил, что сегодня на островах проживают восемь участнико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з них два человека уже имеют почетные звания.

– Законопроектом расширяется категория лиц, которым могут присваиваться звание «Почетный гражданин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ой статус предлагается присвоить за заслуги по защите Отечества в период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одов. То есть званием Почет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наделают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проживающи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яснил он.

Ежегодно звание «Почетный гражданин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учали два-три человека. С принятием изменений в закон ветерано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удостоят высокого звания вне этого лимита. Оконча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примет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ая комиссия.

В преддверии 80-летия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ддержал предлож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дополнительно увековечить подвиг участнико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региональными почетными званиями и наградами тех территорий, где они проживают.

– Отвечая на инициативу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и нами, депутатами, внесены поправки в действующий закон «О звании «Почетный гражданин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 сделано во имя тех, кто прошел сквозь огонь войны и всей своей жизнью заслужил, чтобы их имена стали частью истории нашего островного края. Особый порядок присвоения звания позволит автоматически удостоить шесть ветерано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проживающих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Поронайске, этого высокого статуса, – подчеркнула Елена Касьянова.

Депутаты единогласно поддержали внесение изменений в закон.

##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усилить меры по борьбе с наледью на крышах жилых домов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губернатор поднял вопрос о мерах, которые принимают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по борьбе с наледью на крышах.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помнил руководству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й и главам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об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в случае травм жителей, а также потребовал наладить оперативный мониторинг наледи на крышах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и ее устранение.

– Ко мне периодически доходит информация: там с крыши упала сосулька, здесь кого-то ушибло, здесь чуть не пострадал ребенок. Мэр и управляющим компаниям необходимо следить за этим. Хочу предупредить все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если на голову человека упадет сосулька или наледь, я лично это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отведу в полицию и попрошу, чтобы его наказали со всей строгостью. Упаси Господь, кто-то пострадает из-за упавшей сосульки. Не шутите с этим! Очевидно, что весна в этом году непростая. Утром на улице минус девять, днем плюс один. Поэтому наледи на крышах быть не должно,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Аристархов добавил, что в каждом районе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ов проводится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ая работа.

– Информацию в районы направили. Но не все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дисциплинированы. Для осуществления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контроля за скоплением сосулек и наледи на крышах и их своевременной убор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оводят работу с управляющими компаниями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Работает дежурная служба ЖКХ. Как только информация о сосульках поступает, сразу передается в Госжилинспекцию. У нас создана рабочая группа, все случаи оперативно отрабатываем, – сообщил министр ЖКХ.

По словам исполняющего обязанности руководителя Госжилинспек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Юрия Дробышева, с начала этого года к ним поступило 162 обращения от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ыдано 21 предостережение

и 13 предписаний – все они были своевременно исполнены.

На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заведено 23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дела. Коммуналь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уже выплатили 14 штрафов. Сегодня еще 8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дел находятся на рассмотрении, по ним будут приняты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меры.

## На Сахалине подвели итоги Евразийского Кубка по прыжкам в воду IV Кубок Евразийских стран по прыжкам в воду завершил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течение трёх дней состязаний медали оспаривали спортсмены, представляющие Россию, Белоруссию, Армению, Кубу, Эквадор и Аргентину.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инял Центр вод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Волна», появившийся в столиц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лагодаря соглашению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подписанному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и ПАО «Газпром». Всего прыгуны разыграли восемь комплектов наград – в сольных и синхронных прыжках с трёхметрового трамплина и 10-метровой вышки среди женщин и мужчин. Ходили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 всей семьёй все дни. И каждый раз возвращались только с положительными эмоциями. Раньше такое доводилось видеть только по телевизору, но следить за прыжками в воду вживую и видеть то, что творят спортсмены своими глазами – совсем другое. Очень рады, что у нас состоялись такие старты, а особенно приятно, что мы смогли увидеть первые, и, надеемся, далеко не последние старты по этому виду спорта, – поделила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дежда Читрова. По итогам соревнований в копилке россий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16 медалей – восемь золотых, семь серебряных и одна бронзовая. Эти три дня сопровождалась грандиозной атмосферой праздника. Было сделано большое шоу открытия, повсюду телекамеры, очень много зрителей, бурно поддерживавших всех спортсменов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траны, которую они представляют. Каждый день приходил сюда с радостью и заряженный позитивом, так что буду уезжать отсюда заряженный только положительными эмоциями, – рассказал серебряный призёр в одиночных прыжках и победитель в синхронных выступлениях на 3-метровом трамплине Евразийского Кубка Илья Молчанов. Кубинская команда взяла одно серебро и одну бронзу.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рмении и Белоруссии завоевали по две бронзовые награды. IV Кубок Евразийских стран по прыжкам в воду успешно завершён.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тал для нас абсолютно новой точкой на прыжковой карте. Здесь потрясающий водный комплекс, считая, один из лучших не только в России, но и даже в Европе. Спортсмены и тренерский состав дали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объекту, – подчеркнул вице-президент Федерации вод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России по прыжкам в воду, двукратный бронзовый олимпийский призёр Глеб Гальперин. – Все золотые медали у наших спортсменов. Организация соревновани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Дальше будем планировать здесь самые крупные всероссийские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Также возможны тренирово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сборной команды РФ, поскольку объект прекрасен как для выступлений, так и тренировочного процесса.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овано в рамк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е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 Губернатор поручил усилить контроль за обеспечением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инсулином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региональному министерству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усилить контроль за обеспечением инсулином аптек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ов, оперативно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обращения граждан, связанные с этим препаратом. Такое решение он принял в ходе личного приема сахалинцев по вопросам медицинского характера.

Глава региона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дит встречи с гражданами, которые нуждаются в особом внимании и поддержке. Среди них, в частности, инвалиды, люди с тяжелы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участник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и их семьи. Нередко в ходе общения выявляются острые соци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требующие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го вмешательства властей. На этот раз жительница региона подняла вопрос об обеспечении инсулином. Ее 96-летняя мать, ветеран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нуждается в регулярных инъекциях.

– Препарата в аптеках нет.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инсулин нам передавали с Курилов. Но это разовое решение, а лекарство нужно моей маме постоянно, – пожаловалась женщина.

По указа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приоритетном порядке займется проблемой жизненно важного препарата.

– Наша цель – обеспечить доступную и качественную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каждому жител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еребои с поставками лекарств, особенно для людей с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недопустимы. Необходимо срочно разбираться, почему возникла проблема с инсулином, и принять все меры для ее исправления,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ема обеспечения льготными лекарствами начала терять свою остроту. Однако обращения от людей, которых в назначенный срок не обеспечили льготными препаратами, продолжают поступать.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водится стандарт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лекарствами, устанавливаю-

щий срок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препаратов – от одних до трех суток.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это будет специально созданный Центр мониторинга. В его состав вош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здрава, медицинског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анали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и аптечной сети «Фармация». За каждый случай несвоевременног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лекарств льготникам грозит персональн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Информировать пациентов о поставке лекарств и помогать вовремя получать их будут проводники здоровья.

Другая женщина попросила главу региона помочь в организаци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для сына.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страдающий эпилепсией, учится в одном из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области.

– Сын поступил на бюджет. Очень хочет получить выбранную профессию, чтобы потом по ней трудиться. Но он часто пропускает занятия, так как нужно проходить лечение. Поэтому нам угрожают отчислением. Но мой ребенок не прогуливает, а лечится, – поделилась сахалинк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министру образования урегулировать проблему с отчислением и разработать специ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для молодого человека.

Все озвученные в ходе приема проблемы взяты на контроль.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граждане получат исчерпывающие ответы.

## Еще два объединения бизнесме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держали проект «Счастливого материнства»

Два объединения бизнесменов региона – Союз промышленников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Ассоциация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иков Сахалина – поддержали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Счастливого материнства».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подписал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Союза промышленников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президент Ассоциации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иков Сахалина Максим Козлов.

Автором проекта «Счастливого материнства» ст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Начинание направлено на создание благоприя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беременных, женщин, недавно ставших мамами и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к проекту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ая палата и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Деловой России».

– Помощь материнства – приоритет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соц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Мы стремимся создать все условия, чтобы женщины могли успешно реализовать себя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сфере, так и в роли мам. В рамках этой работы запланирован целый ряд мер. Среди них – карьерные планы для матерей, обеспечение качественной и доступ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и даже развитие института нянь, чтобы у женщин было время на учебу, творчество или просто отдых. Сегодня нашу демографическую инициативу поддержали союз промышленников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и ассоциация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иков.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островной бизнес осознает сво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перед обществом и готов помогать матерям,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еловые объединения обязались в рамках соглашения создавать условия для совмещения женщинам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материнских обязанностей, поддерживать инициатив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укрепление института семьи и повышение рождаемости. Запланировано также внедрение гибких графиков работы, создание комнат матери и ребенка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оказание материальной помощи семьям с детьми, организация консультаций и проведени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культурно-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 Сегодня мало сохранить за женщиной рабочее место, пока она находится в отпуске по уходу за ребенком. Важно дать ей уверенность в завтрашнем дне. Беременные женщины, и те, кто недавно родил, или многодетные матери должны знать, что работодатели совместно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области будут их всячески поддерживать, – добавил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Союза промышленников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президент Ассоциации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иков Сахалина Максим Козлов.

Реализацией проекта займутся и в компании «Океан». Руководство понимает, что для женщины, недавно ставшей матерью, возвращение на работу сопряжено с различными трудностями.

– Благополучие наших сотрудников, особенно женщин с детьми, напрямую влияет на эффективность предприятия. Поэтому мы берем на себя обязательство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частливого материнства» создавать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работающих матерей,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уверенно совмещать карьеру и семью. Это наш вклад в будуще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ы разрабатываем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карьерные планы для мам, чтобы их возвращение на работу было максимально комфортным и эффективным. Мы верим, что счастливая мама – это продуктивный сотрудник, – добавили в компании «Океан».

Отметим, 2025 год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ъявлен Годом счастливого материнства. Цель – внедрить культуру поддержки материнства, развивать инициативы по повышению и стимулированию рождаемости, оказать поддержку семьям с детьм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동포청, 고려인 청소년·청년 위한 '미래이음' 프로그램 참가자들 격려

## KGN, 국내 거주 15~30세 국내 체류 고려인 대상 6주간 정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기성 정책국장 수료식 참가해 "여러 문제 극복해 잠재력 발휘하길" 당부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미래이음'(FUTURE LINK)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국내 체류 고려인 청소년·청년들을 격려했다.

'미래이음'은 지난 3월1일부터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센트로드에서 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이사장 채예진, 이하 KGN)가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부모와 함께 중도입국한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과 청년 20명이 참여했으며, 4월 5일까지 6주동안 열린다.

KGN는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충격, 스트레스 및 고립감, 법적·제도적 정보 부족 등을 조기에 극복하고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한국어 수업을 비롯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준비를 위한 설명회뿐만 아니라 고려인의 역사, 채테크 및 자산 관리, 한국 예절 관련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을 마치기 한주전인 2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수료식에서 채예진 이사장은 "고려인 청소년·청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단순히 적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며 "이 교육이 단순한 배움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성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은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조속히 자리 잡기 위해 도전한 이번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축하한다"며 "여러분의 도전에 재외동포청이 든든한 버팀목으로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여러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잠재력을 발휘하고 한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해 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함께 한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이사는 "오늘 이 수료식이 작은 출발일 수 있지만, 큰 시작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참가자 대표인 김 크리스티나(24, 러시아) 씨는 "수고해 주신 강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특히 전통공예 강의가 흥미로웠다. 이번 프로그램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미래이음' 2기 프로그램은 4월 12일부터 24명을 대상으로 평택에서 5주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 재외동포청, 재중동포 '맞춤형 정책' 개발 위해 의견수렴 나선다

## 이기성 정책국장, 중국 선양·베이징 동포사회의 관심사항 청취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재외동포정책 기본법\*등에 따라 전 세계 동포사회 의견 수렴 등을 기초로 지역별 맞춤형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추진 중이다.

\* 재외동포정책 기본법 13조(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의 일환으로,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 4월 3일부터 6일까지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 ▲선양한국인(상)회 ▲북경한국인회 ▲북경다누리센터\*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 ▲전국애심여성포럼\* ▲도시우리말학교협의회\* 등 중국지역 동포단체 관계자들을 만나고 간담회를 진행한다.

※ 북경다누리센터 : 북경지역 한-중 다문화가정 모임

전국애심여성포럼 : 중국 내 대표적인 조선족 여성단체  
도시우리말학교협의회 : 중국 소재 조선족 주말한글학교 연합체

이를 통해 재외동포청은 ▲차세대 정체성 강화 방안 ▲재외동포 다문화가정 지원 ▲동포사회 내 단합 등에 대한 중국 지역 동포사회의 관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동포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중국지역 동포사회 맞춤형 동포정책을 구제해 나갈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 韓日대학생, 오사카서 '한국문화·기술' 전파

## 31일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서포터즈 발대식한국관도 하루 6000명 방문 예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강경성)는 3월 31일 KOTRA 본사 IKP에서 한일 양국 대학생 중심으로 '2025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6개월간 오사카 서쪽의 인공섬 유메시마에서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의 주제는 '생명이 빛나는 미래사회 디자인(Designing Future Society for Our Lives)'이다. 이번 오사카 엑스포는 전 세계 158개국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약 2820만 명 방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 KOTRA가 주관하는 한국관은 '마음을 모아(With Hearts)'라는 주제로, 전통·자연·기술·문화에 대한 3개 전시관으로 운영되며, 하루 평균 6000명의 관람객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관 서포터즈는 한국과 일본의 열정적인 대학생 및 청

년들 가운데 높은 경쟁률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36명, 일본에서 5명이 선발되었다. 이들은 4월 4일 오사카 현장으로 출국하여 엑스포 기간 6개월 동안 한국관 방문객 안내 및 응대,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KOTRA는 서포터즈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전 교육과 실습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강경성 KOTRA 사장(한국관 정부대표)은 이날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서포터즈에 지원해 준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격려하는 한편, "서포터즈는 한국관을 대표하는 첫 번째 얼굴로, 창의적인 홍보와 현장 지원을 통해 전 세계 방문객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기술을 알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외동포신문)

# 지노비에프 게오르기 주한 러시아 대사 인터뷰

(3편의 계속)

1991년 이후 계속 노후화가 진행됐고 소련 시기에 지어진 인프라도 파괴돼 대대적인 재건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누가 복구 비용을 부담할지 불명확하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러한 여력이 전혀 없으며 서방 납세자들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서방 국가들이 전후 복구 비용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방 국가들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그들조차도 그러한 조치가 단순한 '도둑질'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유럽 국가들 사이엔 자강론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국방비도 증액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러시아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가.**

"이미 말했듯 러시아는 유럽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러시아의 위협이라는 허황된 주장은 유럽의 정치 세력이 자국 내 문제를 해결하고 군산복합체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20세기에 그들이 군비 확장을 적극 추진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되새겨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독일은 이 점을 되새겨야 한다."

**-전쟁 중 양측에서 발생한 전쟁 범죄에 대한 국제 조사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 영장 및 기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에 대한 전례 없는 거짓과 허위정보 캠페인을 벌였다. 이런 사례는 한 두 건이 아니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게 서방 언론은 금세 잊어버린 '부차 사건'이다. 이 사건이 우크라이나 내부 전쟁 강경파가 이스탄불 협상을 무산시키기 위해 이용한 자작극이란 것을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우크라이나 프로파간다(선전·선동)와 그를 비호하는 서방이 만들어낸 다른 정보들도 그 정도의 신빙성을 가질 뿐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전쟁 범죄를 문서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성과 노인,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대량 학살, 전쟁 포로에 대한 고문 및 학대, 전쟁 법규 위반, 그리고 그 준비와 실행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보원과 기타 여러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러시아 영토 테러 등이 있다. 이런 잔혹행위의 배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활개치는 네오나치 집단이 있다. 이 모든 범죄는 반드시 처벌될 것이다. 아울러 러시아는 이른바 ICC를 합법적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 결정은 시골 서커스단 광대가 내린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푸틴 대통령은 외국 기업의 복귀를 언제든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떠한 혜택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한국 기업의 복귀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또 현재 복귀를 논의 중이거나, 선호하는 기업이 있나.**

"러시아는 어떤 외국 기업도 강제로 내쫓지 않았다. 떠나고 싶었던 기업은 떠났고, 남고 싶었던 기업은 남아 번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전례 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은 사업장 철수로 정치적 쇼를 벌이지 않았고, 철수한 기업들은 외부 압력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들 중 다수가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고 확인한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해 발표했고, 최근 북한과 협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과의 관계는 소원해졌는데, 이전엔 외교·경제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평화협정 후 한국과 관계를 정상화할 의향이 있나. 그리고 한국을 '비우호국' 명단에서 해제할 계획이 있는지.**

"이 질문은 최근 몇 년간 러-한(한러) 관계 전개 양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에 여러 제재를 도입했고 러시아로의 수출통제 및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 수는 현재 기준 1341개에 달한다.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모든 국가는 '비우호국' 명단에 포함돼 있다. 정치·경제적 관계 복원과 양국 기업 간 협력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고 본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강요하지 않으며 이 문제를 파트너 국가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직항 항공편 복원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현재 러시아와 한국 간 직항 노선이 없는 것은 오직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 즉 '양국 국민들이 쉽게 접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과거 한국 정부의 초청에 응해 사할린 등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러시아 국민들, 이른바 '고려인'들도 직항편 부재로 가족과 재회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측은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출처: 뉴시스)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Просматривая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я понял, люди в принципе вообще мало понимают в авиации, а те, кто только начинают свой путь в беспилотной, тем более. Есть ряд вопросов, которые требуют уточнения, хотя о том, в чем уникальность нашего перелета было сказано в новостях, но без расшифровки видимо понять это сложно.

Дело было вообще не в расстоянии. Мы могли пролететь Погиби - Лазарев - это 9 км. Могли с Холмска до Ванино или любой другой маршрут хоть на 300, хоть на 500 км. Мы сделали то, чего не делал никто в стране и мире. Мы перелетели из аэропорта в аэропорт по правилам гражданской авиации как управляемый самолет, без установки режима в которых летают БПЛА. Мы доказали, что беспилотник может лететь вместе с самолетами, и так летели. Нас пришлось разводить в очередь на посадку с бортом, который садился в Николаевске. В этом уникальность этого полета, а не в его расстоянии или что вез дрон по нагрузке", - сообщил Дмитрий Третьяков.

## 러시아, 4월 1일부터 이민자 자녀 러시아어 시험 필수

러시아는 2025년 4월 1일부터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러시아어 의무 시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발의안은 국가두마 왜체슬라브 월로진 의장, 이리나 야로와야 부의장, 하원의 주요 위원회 및 프락치아 수장들이 발의했다. 2024년 1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언어(러시아어)를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자녀의 학교 등록을 금지하는 법에 서명했다고 '노위스티'러시아통신사에서 보도했다.

이제 이주민의 자녀들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러시아어 시험을 치러야 한다. 1학년의 경우 구술 시험만 진행된다. 2학년부터는 구술시험 및 필기시험이 추가로 진행된다. 연령별로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진다.

처음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러시아어 교육 과정 수강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며, 3개월 후에 다시 시험

에 응시할 수 있다.

## С 1 апреля детям мигрантов в России потребуется сдать экзамен на знан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С 1 апреля 2025 года в России вводят обязательное тестирование на знан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для детей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Такая инициатива разработана председателем Госдумы Вячеславом Володиным, вице-спикером Ириной Яровой, а также главами ключевых комитетов и фракций нижней палаты парламента. В декабре 2024 года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дписал закон о запрете зачисления в школы детей иностранцев, не владеющ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языком, сообщили в РИА Новости.

Теперь дет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обязаны сдавать тест на знан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перед поступлением в школу. Для тех, кто идет в первый класс, предусмотрен только устный экзамен. Со второго класса к устному тесту добавят письменную часть. С каждым годом сложность заданий возрастает.

Тем, кто не смог сдать экзамен с первого раза, предложат пройт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курсы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Повторно пройти тестирование можно будет через три месяца.

## 1월부터 сахалин 수산물 약 7만톤 해외로 수출

극동 관세국에 따르면 3월 28일 현재, сахалин 주 기업들은 국가 프로젝트인 '국제 협력 및 수출'의 일환으로 68만5천 톤, 1억 4,040만 달러 상당의 수산물을 수출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 명태, 대구, 청어, 성게 및 고도로 가공된 제품들이 기반이 되었다. сахалин 주 수산부의 보도부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출의 약 80%가 냉동 제품이었다고 한다.

сахалин 주에 새로운 생선 가공 공장이 건설되면서 수출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투자 쿼터 프로그램의 1단계와 2단계 시행의 일환으로 기업들은 6개의 생선 가공공장을 준공했고, 2028년까지 2개의 가공공장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폐기물 제로 생산과 심층 가공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은 수출 수익을 늘리기 위한 전략적 조치입니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 сахалин주의 입지를 강화할 것입니다."라고 сахалин 주 수산부 장관 이완 라드첸코가 말했다.

수산업 분야의 최우선 과제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Почти 70 тысяч тонн сахалинской рыбопродукции экспортировали за рубеж с января

По данны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тамож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на 28 марта,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операция и экспорт" предприя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кспортировали 68,5 тысяч тонн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и на сумму 140,4 млн долларов США. Основу поставок составили минтай, треска, сельдь, морские ежи и продукция глубокой переработки.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около 80% экспорта составляла мороженая продукци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х завод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пособствует изменению структуры экспорта.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первого и второго этапов программы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квот предприятиями построено 6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х заводов. До 2028 года запланирован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еще 2-х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х комплексов.

— Переориентация на безотход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и глубокую переработку —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шаг для увеличения экспортной выручки. Это не только повышает экономическую эффективность, но и укрепляет позиции региона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рынках",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по рыболов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ван Радченко.

Приоритет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развития отрасли является расширение присутствия в странах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АТР) и выход на новые рынки.

(сахалин 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옥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